

서유럽 테마연수 보고서

I 출장개요

1 목적

- 선진지 역사와 사회·문화 이해를 통한 글로벌 환경에 대한 국제적인 감각과 젊은 안목 확대
- 앞선 행정 우수사례 견학을 통한 “시민이 잘사는 행복 도시, 순천”을 위한 굿 아이디어 발굴

2 기간 : 2016년 3월 26일 ~ 4월 3일(7박 9일)

3 방문국가 : 이탈리아, 스위스

4 여행자 인적사항

구분	소속	직급	성명	업무분장
	인원		6명	
1	전략기획과	행정7급	김동헌	기획연수 총괄
2	전략기획과	행정8급	이진희	연수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3	전략기획과	행정9급	박지연	현지 연수일정 관리
4	전략기획과	실 무 원	심미애	연수 기록(사진 및 동영상) 촬영
5	여성가족과	복지8급	홍미선	방문지 자료 수집 및 정리
6	왕조2동	복지8급	이정배	여행경비 관리(총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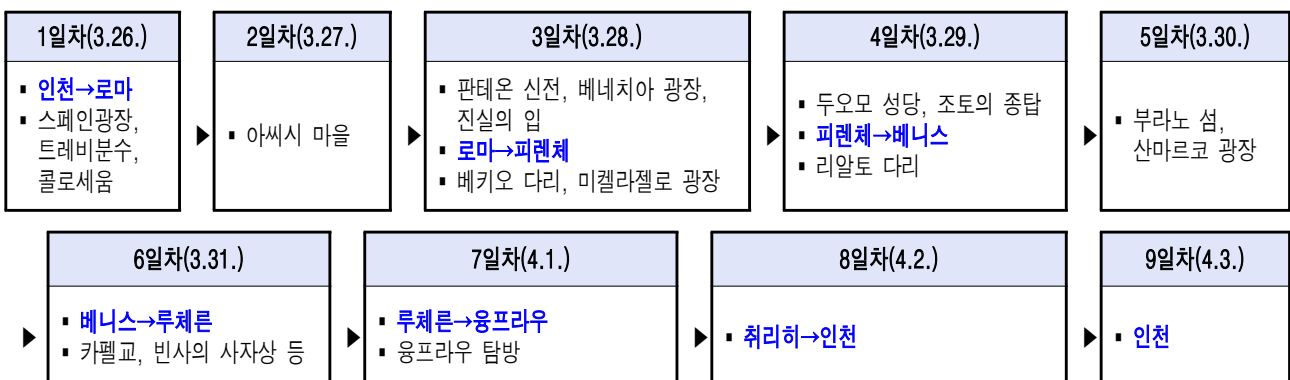
II

출장일정

1] 주요일정

일자	지역	교통편	주요일정	비고
3. 26.(토)	인천/UAE	항공	▪ 이동(인천 → 아부다비)	
3. 26.(토)	UAE/이탈리아	항공	▪ 이동(아부다비 → 로마)	
3. 27.(일)	이탈리아	버스	▪ 로마 탐방(버티칸시티, 콜롬세움 등)	
3. 28.(월)	이탈리아	철도	▪ 이동(로마 → 피렌체) ▪ 피렌체 탐방(두오모 성당 등)	
3. 29.(화)	이탈리아	철도	▪ 이동(피렌체 → 베니스)	
3. 30.(수)	이탈리아	버스	▪ 베니스 탐방(수상버스 체험 등)	
3. 31.(목)	이탈리아	철도	▪ 이동(베니스 → 밀라노)	
3. 31.(목)	이탈리아/스위스	철도	▪ 이동(밀라노 → 루체른) ▪ 루체른 탐방	
4. 1.(금)	스위스	철도	▪ 이동(루체른 → 인터라켄)	
4. 1.(금)	스위스	철도	▪ 이동(인터라켄 → 융프라우) ▪ 융프라우 탐방	
4. 2.(토)	스위스	철도	▪ 이동(융프라우 → 취리히)	
4. 2.(토)	스위스/UAE	항공	▪ 이동(취리히 → 아부다비)	
4. 2.(토)	UAE/인천	항공	▪ 이동(아부다비 → 인천)	
4. 3.(일)	인천	-	▪ 도착(인천)	



2] 이동경로



III

출장내용

1 일반현황

<p>이탈리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 : 로마 ▪ 언어 : 이탈리아어 ▪ 인구 : 약 6,185만명 ▪ 면적 : 약 30만km² (한반도의 1.364배) ▪ 통화 : 유로화 (Euro) ▪ 환율 : 1EUR=1313.28원 (2016. 4. 1.)
<p>스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 : 베른 ▪ 언어 :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 인구 : 약 812만명 ▪ 면적 : 약 4만1천km² (한반도의 0.187배) ▪ 통화 : 스위스 프랑 (Swiss Franc) ▪ 환율 : 1CHF=1199.63원 (2016. 4. 1.)

2 주요내용

1일차 3월 26일 이탈리아 (로마)

가. 스페인 광장과 스페인 계단

○ 구부러진 나비넥타이처럼 생긴 스페인 광장은 '로마의 휴일'에서 오드리햅번이 아이스크림을 먹는 장면으로 유명해져, 관광객들로 붐비는 장소이다.

○ 스페인 계단과 함께 관광객들과 로마 시민들의 장소이다. 계단을 오르면 고대 이집트의 오벨리스크가 높이 솟아 있다.

○ 그 뒤로는 고딕양식의 트리니타데이몬티 교회가 있고, 그 왼쪽에는 메디차가의 저택과 정원이 있었던 핀초언덕이 있다. 이 핀초언덕에 오르면 로마의 구시가가 눈에 들어온다.



나. 트레비 분수

- 로마에서 가장 거대하고 가장 유명한 분수로 관광객들이 던진 동전이 항상 쌓여있다. 뒤를 돌아 동전을 던지면 로마에 다시 오게 된다는 속설 덕택이다.
- 아름다운 조각이 있는 벽면은 팔라초 폴리 건물 of 한쪽 면으로, 한 가운데 대양의 신 오케아누스가 있고, 양 옆의 석상은 풍요와 건강을 상징한다.
바다의 신 트리톤이 이끌고 있는 두 마리의 말은 격동의 바다와 잔잔한 바다를 상징하고, 분수대의 거대한 수반은 대양을 상징한다.
- 이곳 역시 로마의 휴일에 나온 명장소이다.



다. 콜로세움

- 고대 로마의 유적 중 가장 큰 것으로 '거대하다'라는 뜻의 코로살레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 정식명칭은 '홀라비오 원형극장' 이라고 한다. 홀라비오 황제 때 세워진 것으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착공하여, 그의 아들 티투스 황제 때에 완성하였다.



- 로마 시민의 오락시설로서, 여기에서는 글라디아토르의 시합, 맹수연기 등이 시행되었다. 2,000년이 지나면서 많은 부분이 파손되었지만, 그때의 그 웅장함은 여전하다.
- 검투사들의 대결과 호화로운 구경거리가 펼쳐지던 거대한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누군가에겐 생존을 위한 처절한 혈투가 누군가에겐 하나의 유희이 된 곳으로 사람이라는 동물은 과연 어디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시선으로 보는 것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규모만큼은 시간이 지나도 기억 속에 뚜렷이 남아 있다.

가. 아씨시

- 넓은 평원 위에 솟은 해발 424m의 수바시오 산에 위치한 이 도시는 성 프란체스코 및 성녀 글라라가 탄생한 주요 가톨릭 순례지의 하나이다.



- 성 프란체스코 성인의 유골이 보관된 성 프란체스코 수도원에는 언제나 수많은 순례객의 경건함이 끊이지 않는다.
- 로마 제국 시대부터 번영한 시장 도시이며, 성벽으로 둘러싸인 시가지는 굴곡이 심한 좁은 길이 사방으로 뻗어 있어 중세의 자취를 느낄 수가 있다. 움브리아 평야의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가톨릭 역사 외에도 아씨시는 그 자체로도 아주 훌륭한 관광지이다.

- 성프란체스코, 성녀 글라라의 고향이기도 한 이곳은 반나절이면 마을 전부를 굽이굽이 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소규모 마을이지만, 작고 아기자기한 상점들과 귀여운 골목들이 많아서 동화 속 마을 같으며, 중세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해서



인지 CF에나 나옴직한 꿈에 그리던 시골 한적한 유럽 마을 풍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도시였다. 여행하면서 가장 예쁜 마을이라고 생각될 정도이다.

- 또한, 아씨시는 마을 전체가 분홍색 벽돌로, 이 벽돌은 인공적인 것이 아닌 천연 그대로의 벽돌로 굉장히 인상이 깊은 마을이다.



- 아씨시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성 프란체스코 성당이다.
- 이곳은 성 프란체스코를 위해 세워진 성당으로 상하 2층으로, 아래층은 지하 예배당처럼 어둡지만 조토를 비롯한 중세화가들의 벽화와 아름다운 스테인 글라스로 장식되어 있다.
- 성 프란체스코의 유체는 지하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으며, 위층은 조토가 성 프란체스코의 생애를 28개의 장면으로 나누어 그린 프레스코화가 있다.
- 그 외에도 산타 키아라에게 바쳐진 흰색과 분홍의 대리석을 된 자그마한 산타 키아라 교회, 산 프란체스코가 수도 생활로 인도하는 신의 목소리를 듣고 재생을 기도했던 산 다미아노 수도원 등이 있다.
- 비록 화려하진 않지만 성인들의 삶과 그들의 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가. 판테온

○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Pan+theo+on)이란 의미의 신전으로 로마에서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고대의 건물이다.

○ 판테온은 그 규모, 구조 및 설계가 매우 특이하며 대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는 가장 커서 지름이 약 43.3m이고, 기단으로부터의 높이가 21.6m에 이른다.

건물의 본체는 구형 공간이 돔 중앙에

있는 지름 8.2m의 오쿨루스를 통해 들어오는 빛에 의해서만 채광되고 있으며 대리석으로 입혀져 있다. 천장의 4각형 정간은 세베루스 때 새겨진 것으로 보이며 청동제 장미 장식과 몰딩으로 꾸며져 있다.

○ 판테온은 기원전 25년에 세워졌는데 로마 국민들의 긍지를 갖게 하기 위해 세워졌던 것으로 그 당시 신들이 안치되어 있었다.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이었으나 608년 카톨릭 성전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판테온 내부에 이탈리아 왕국 초대왕의 묘소가 안치되어 있다.

○ 판테온의 입구는 원형기둥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원형돔으로 이루어진 원통 구조이며, 원형돔은 우주를 상징한다.

판테온의 내부에 들어오면 돔의 정 가운데 동그랴게 구멍이 나있는데, 이는 판테온 실내로 유일하게 빛이 들어오는 곳으로 정오 무렵이면 태양광선이 들어와 실내를 조금 더 성스러운 공간으로 만들어준다. 또한, 벽면과 바닥의 모자이크가 천장으로 부터 내리쬐는 빛에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었다.



나. 베네치아 광장

○ 빅토리아 임마누엘2세 기념관이라고도 불리워지는 이곳은 이탈리아 초대국왕인 빅토리오 엠마누엘 2세의 즉위를 기념해서 세운 것으로써, 베네치아 광장 남쪽에 세워져 있으며, 정면의 기마상이 엠마누엘 2세이다.



○ 계단 서쪽에 세워진 동상중 우측은 '조국애의 승리', 좌측은 '노동의 승리'를 나타내고 있다. 건물 제일 높은 층의 상부에는 이탈리아 주요 도시의 상징이 올려져있고 양측의 커다란 두개의 문 위에는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보인다.

다. 진실의 입

○ 보카 델라 베리타 광장에 있는 산타 마리아 인 코스메딘 성당 입구 한쪽 벽면에 있는 얼굴 앞면을 둥글게 새긴 대리석 가면이다.

○ 고대 로마의 하수도 뚜껑으로 사용되던 것이었다고 하나 확인된 것은 아니다.

조각상은 수영이 있는 남자의 얼굴로 눈과 코, 입이 뚫려있어 이 구멍으로 물이 빠졌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진실의 입이란 이름은 조각상의 입에 손을 넣고 거짓말을 하면 강의 신 플루비우스가 손을 잘라버린다는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중세시대에는 일부 영주들이 사람들에게 손을 넣게 하고 몰래 잘라 버리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그레고리 펙과 오드리 헵번이 출연한 1953년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로마의 휴일'에 나오면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다.

- 진실의 입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진실의 입이 있는 산타 마리아 인 코스메딘 성당 안에는 발렌타인데이의 유래가 된 성 발렌티노의 유골이 모셔져있다.



라. 베키오 다리

- 1345년에 건설된 베키오 다리는 피렌체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다.
- 원래 이 자리에는 로마 시대에 지어진 나무다리가 있었는데, 홍수로 휩쓸려가자 새로 건설한 것이다. 다리의 설계는 지오토의 제자인 타데오 가디가 맡았으며, 아르노 강의 가장 좁은 곳에 세워졌다. 원래 이 다리 위의 상점에는 푸줏간 등이 많아서 늘 냄새가 고약했는데, 가까이 궁전이 있었기 때문에 페르디난도 1세는 궁전 주변에 어울릴만한 보석상들을 이 다리의 상점에 들어서게 하면서 기존에 있던 상점들은 철거했다.
- 다리 가운데에 있는 흉상은 피렌체에서 가장 유명한 금 세공인인 벤베누토 첼리니이다.
- 이 다리에서 바라보는 아르노 강의 풍경이 아름다운 데다가, 세기의 연인인 단테와 베아트리체가 만난 곳이기 때문에 더욱 낭만적인 장소로 유명하다. 그래서 이 다리와 주변에는 자물쇠가 많이 채워져 있다. 사랑의 징표인 자물쇠를 열쇠로 채우고, 열쇠를 강에 던져 버리는 연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마. 미켈란젤로 광장

○ 피렌체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늘 사랑 받고 있는 미켈란젤로 광장은 특히 노을 지는 저녁과 밤에 더욱 아름다운 곳이다. 피렌체 시내에서 아르노 강변 남쪽 기슭의 언덕 위에 조성된 광장이라서 이 광장에 오르면 피렌체 시내와 아르노 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 광장 중앙에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세워져 있는데, 복제품이긴 하지만 피렌체에서 아쉽게 원본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원본에 버금가는 인기가 있는 작품이다.



○ 피렌체 여행의 하루를 마감하면서 미켈란젤로 광장에 가 보자. 너무 밤늦게 가는 것보다 노을이 지기 전에 도착해서, 노을 지고 밤이 되는 모습까지 모두 보고 내려오는 것이 좋다.



○ 특히 해질 무렵, 노을이 지는 아르노 강의 풍경은 여행을 끝내고 돌아간 후에도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피렌체를 떠오르게 하는 영상으로 남는다.



가. 두오모 성당

- 과연 피렌체를 설명할 때 두오모를 빼고 설명할 수가 있을까?
- 성당은 1294년 피렌체의 시민들이 낡은 산타 레파라타 성당 대신에 대성당을 짓기로 결의, 1296년 아르놀포 디 캄비오의 설계에 따라 기공되었다.



- 몇 차례 설계의 주체가 변경되고 공사의 중단을 겪으면서 1420년까지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거대한 돔은 1887년에 가서야 에밀리오 데 파브리스카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 높이 106미터의 이 거대한 주황색 돔은 미켈란젤로가 성 베드로 성당의 돔을 만들때 참고했을 정도로 그 규모와 아름다움을 짐작할 수 있다.
- 흰색 일색으로 지어진 고대 성당 건축과는 다르게 주황색과, 녹색의 대리석을 기하학적으로 배열하여 사용한 이 성당은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변색되어 고딕양식의 예리함보다 오히려 유연하면서도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며, 후일 피렌체 고딕 양식이란 독특한 장르를 만들게 되었다.
- 꽃의 성당 두오모는 피렌체 시의 상징으로 도시 어디에서나 아름다운 거대한 돔이 눈에 들어온다.
- 두오모 박물관에 가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와 도나텔로의 <마다레나> 그리고 베로키오, 미켈로초, 플라이올로가 세운 제단 등을 볼 수 있다. 두오모 내부로 들어가면 여러 프레스코화가 있으며, 돔에 올라가는 총 계단은 463계단이다.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 가 이곳에서 촬영되었다.

나. 조토의 종탑

- 두오모 건설의 총 책임자였던 지오토가 1334년에 설계를 하고 종탑의 기초 부분 공사 후 1337년에 그가 사망하자 그의 제자인 안드레아 피사노와 탈렌티에 의해 1359년에 완성되었다. 안드레아 피사노는 피사의 사탑(1173년)을 만든 보나노 피사노의 후손이다. 종탑에 오르려면 총 414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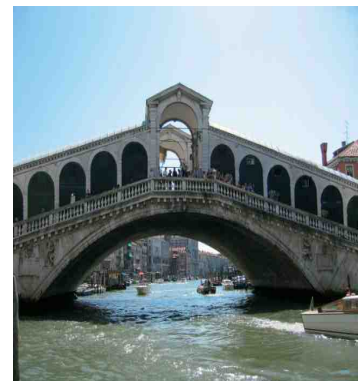


종탑에 올라 테라스로 나가면 웅장한 두오모의 모습과 오렌지빛 피렌체의 모습이 한눈에 펼쳐진다. 내부는 피사의 사탑보다 넓은 편이다.



다. 리알토 다리

- 베네치아 관광 책자에 늘 등장하는 리알토 다리. 베네치아의 운하 중에서도 폭이 가장 좁은 곳을 선택해 놓여진 다리가 바로 리알토 다리인데, 원래는 목조로 지어졌지만, 16세기 말 안토니오 다 폰테의 설계로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지금의 다리로 바뀌게 되었다.



- 이 다리 근처가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의 주요 무대가 되는 곳이다. 명작 속 배경인 데다가, 이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아름답기 때문에, 언제나 많은 관광객들로 활기가 넘치는 곳이다.
- 다리 위에는 각종 기념품 가게가 즐비하고, 다리를 건너면 시장이 나온다. 기념품들이 다양하며 마스크와 모자가 유명하다.



5일차 3월 30일 이탈리아 (베니스)

가. 부라노 섬

- 부라노 섬은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집들과 레이스 공예로 유명하다. 실제로 부라노 섬에는 레이스를 가르치는 전문 학교도 있다. 레이스 산업은 베네치아의 역사에서 16~17세기에 가장 번성하였는데 유럽 각지로 레이스로 된 거튼, 식탁보, 깔개 등이 많이 팔려 나갔다.



- 부라노 섬은 아이유가 뮤직비디오를 찍은 장소로써 한국인들 사이에선 '아이유 섬'으로 많이 불린다.

나. 산마르코 광장

- 베네치아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산마르코 광장에는 산마르코 성당과 두칼레 궁전 등 주요 관광지가 모두 모여 있다.



- 나폴레옹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응접실'이라고 격찬한 곳인 만큼, 이곳은 베네치아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다. 그 매력 덕분에 베네치아를 여행하면서 여러 번 발걸음을 하게 한다. 원래 이곳은 채소밭이었는데, 1723년 티랄리가 광장의 바닥을 설계하면서 지금과 같은 대표적인 광장이 되었다고 한다.

6일차 **3월 31일 스위스 (루체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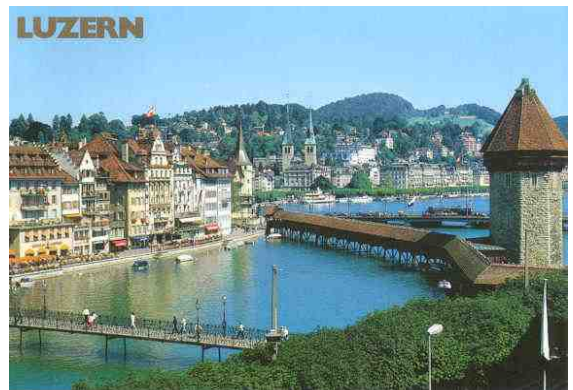
가. 카펠교

- 루체른 요새의 일부로 14세기 초에 세워진 지붕 있는 목조 다리로, 근처에 있는 성 피터 교회의 이름을 딴 것이다. 들보에 약 110여 장의 판화가 걸려 있다. 1993년 화재로 반은 소실되었다가 다음해에 완전하게 복원되었다. 다리 중간에 있는 팔각형의 수탑은 예전에는 망을 보던 곳이었다.



나. 빈사의 사자상

- "루체른 빈사의 사자상, The dying Lion of Luzern"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념물 중 하나이다. 이 기념물은 1792년 파리 툴트리 궁전에서 맞은 스위스 용병의 용감한 죽음을 기념하며 자연석에 새긴 조각이다. 글로베트로터 마르크 트바인은 루체른의 사자상을 "세계에서 가장 슬프고도 감동적인 바위"라고 묘사했다.



다. 워터 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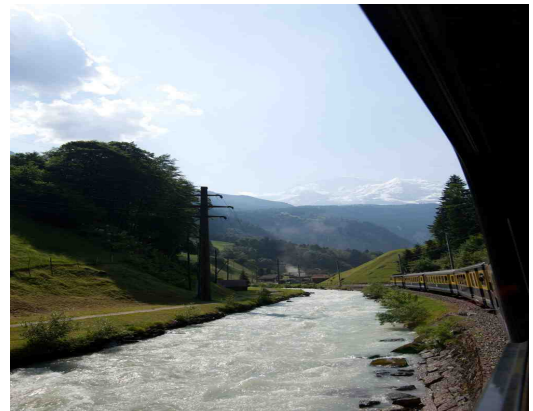
- 34m 높이의 이 팔각 타워는 1300년에 도시 성벽의 일부로 건축된 것이다. 문서국, 감옥, 고문실로 이용되기도 했다. 루체른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이 워터 타워는 스위스에서 가장 많이 사진이 찍히는 기념물이다.



7일차 4월 1일 스위스 (융프라우)

가. 융프라우

- 스위스를 말하면 알프스를 빼놓을 수 없고 알프스를 말하면 융프라우를 빼놓을 수 없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열차역이 있고, 알프스의 높은 봉우리에서 알프스의 장관을 볼 수 있으며 레저 스포츠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융프라우로 가는 산악열차>

- 정상까지 열차로 쉽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모인다.

- 융프라우 산은 표고 4,166m, 베른 알프스(베른의 남동)에 있는 알프스의 고봉이다. '처녀'라는 이름이 말해주듯 우아한 모양이다.



IV

시사점 및 특이사항

① 물 500ml에 1-2유로, 화장실 1회 사용에 5센트-2유로로 비싸다.

- 우리 문화와 1차로 충돌한 것은 물과 화장실이었다. 우리나라 식당에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물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화장실이 꽤나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물맛은 우리나라보다 형편없었다. 알고 보니 유럽은 모든 수질에 석회석이 포함되어 반드시 정수를 해야 음료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화장실의 경우도 지역마다 다르지만 남녀의 경우 값이 다르고 남자는 소변과 대변의 값이 각각 달랐다. 귀국해서 가장 먼저 느낀 점은 우리 물의 귀함과 아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샤워장 물도 우리 물만큼 수질이 좋은 나라는 없는 것 같았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물에 대하여 좀 더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한 때라 생각이 든다.

② 모든 건물이 0층부터 시작한다.

- 유럽에서는 우리의 1층이 0층에 해당한다. 숙소에서도 깜빡하면 1층을 덜 올라갔다가 다시 한 층을 올라가기 십상이다. 일반적인 가정집을 보더라도 단층집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왜 그럴까? 이유는 땅에 습기가 많아서란다. 우리나라 기후가 얼마나 좋은가를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③ 유럽의 도시는 200-300년 전 중세시대에 건축되었다.

- 유럽의 도로는 오늘날의 차량이 다니기에는 너무 좁고 바닥은 영락없이 돌로 깔려있다. 돌을 벽돌 만하게 쪼개서 길바닥이 되는 부분은 평평하게 다듬어서 그 넓고 긴 도로를 모두 돌로 깔았다. 차량이 다니기에는 덜덜거려서 승차감이나 안정감이 매우 떨어진다. 그러나 차량이 없던 몇 백 년 전 마차가 다니던 길을 생각하면 그 당시 이렇게 집을 짓고 도로를 내고 도시를 계획했다는 것이 놀랍다. 더욱이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옛 것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고 앞으로도 수 백 년을 그대로 사람들이 살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 진다. 집도 대부분 대리석과 같은 돌로 건축했기 때문에 영구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럽 각 국가에서는 옛 건물에 대하여 집주인이라도 함부로 외부를 고치거나 형태를 바꿀 수 없다고 한다. 다소 불편해도 옛 것을 보존하고 기리는 정신이 배어 있는 듯하다. 바꾸기를 좋아하고 새것이라면 다 좋아하는 한국인의 의식에 접목시키고 싶은 부분이다.

④ 이탈리아는 모든 차량이 낮에도 점등하고 운행한다.

- 낮에도 차량 운행시 점등을 켜면 사고 발생률이 적다는 통계가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이미 차량 문화가 운행시는 자동 점등으로 된 것 같다. 우리시도 대대적으로 벤치마킹하면 어떨까?

⑤ 베니스 바다위에 도시 어떻게 만들었을까?

- 베니스는 1,500년 전 1,000년 동안 만든 해상 도시로 118개의 섬과 180개의 운하, 410개 다리로 이루어졌고 인구는 26만 여명, 관광객이 연 6천만명 정도다. 갯벌에 나무를 베어다가 박고 그 위에 건물을 졌다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해변이나 언덕이 없고 건물 벽이 바로 바닷물에서 올라간 것을 보면 불가사의다. 바다에 세운 인공도시인 것만큼은 틀림없다. 인간의 무한한 능력에 경외감을 느낀다.

⑥ 이탈리아는 문화유적의 보고이며 그 유적을 먹고 사는 나라다.

- 이탈리아는 가는 곳이 문화유적이고 2,000년 전의 인류 문화가 꽃을 피웠던 곳이다.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화유적을 보려고 몰리는 것이다. 이탈리아는 1인당 GDP는 한국보다 조금 나은 3만불에 불과하지만 거리질서 등은 선진국 수준에서 다소 떨어지는 듯했다.

7] 스위스는 천혜의 천연자원을 최고의 관광지로 개발하여 돈을 버는 나라다.

- 스위스는 EU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부국이다. 이미 100년 전에 3,400m가 넘는 만년설에까지 기차를 끌어올리고 세계의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대단한 나라다. 숨쉬기조차 불편을 느끼는 높이에서 바위와 얼음을 뚫어서 터널을 만드는 일을 100년 전에 했다는 것이 대단하다. 알프스의 높고 험준한 산악의 전국토를 터널을 뚫고 기차로 자동차로 연결하여 놓았다. 어디 그뿐인가 영세중립을 유지하며 전쟁의 위험이 아주 적은 나라지만 전시동원체제가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나라다. 모든 가정에 소총과 기관총 등 전쟁이 발생하면 국민 각자가 사용할 무기를 비치해 놓고 비상이 발령 되면 즉시 무기를 들고 진지로 투입하게 되어 있는 나라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는 명언의 표본이 되고 있는 스위스, 외침 없이 당연히 잘 살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 전 국토의 70%가 산악이고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휴전상태인 우리나라가 스위스로부터 배워야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

8] 밤거리가 조용하고, 물가가 비싸고, 승용차가 작고, 서두르지 않는 나라

- 연수 기간 중 이탈리아든 스위스든 밤거리가 매우 조용했다. 차량은 많이 운행되는데 도무지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다. 모든 직장인들은 퇴근하면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지낸다고 한다. 철저히 가정을 중심으로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어쩌면 물가가 비싸서 나와 돌아다니기도 어려울 것 같다.
- 모든 승용차가 소형인 점도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같지가 않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본래 근검절약정신이 몸에 밴 종교적 영향과 중세사회에 건립된 도로를 그대로 사용하다보니 좁은 도로에서 운전이 편한 점이다.

- 유럽의 국가들은 건물을 건축하는데 몇 백 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그만큼 느긋하다. 대신에 완벽하게 짓는다.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와 대비되는 점이다.

9 견고하고 튼튼한 문화를 배워야 한다.

- 외국 어느 유명한 사전에 우리나라 말 몇 개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빨리빨리'가 있다고 한다. 우리 국민이 얼마나 '빨리빨리'를 좋아하면 그런 단어가 수록 되어 있을까? 그래서 선진국에서 300년, 일본에서 100년 걸린 경제건설을 우리는 30년 만에 완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좀 천천히 하면서 무엇을 만들든지 견고하고 튼튼하게 하는 문화를 형성했으면 좋겠다.
- 이번 연수를 통해 가장 부러움을 샀던 말은 “200년 300년 전에 지은 건물을 지금도 그대로 사용 한다”는 말이었다. 우리 같으면 몇 번을 새로 짓지 않았을까? 얼마나 잘 지었으면 그럴까? 우리의 빨리빨리도 좋지만 튼튼하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건축물을 하나 짓더라도 최소 100년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여유와 기다림으로 건축하는 그런 문화가 아쉽다.

10 체험은 곧 지식이고 교육이다.

-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다. 아무리 책이나 자료에서 지식을 얻는다 하더라도 한번 가서 보는 것이 교육효과가 크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번 해외연수는 앞으로의 공직생활 내내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습득한 소중한 소중하고 유익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